

축구종가 콧대 꺾은 이탈리아 '죽음의 조'서 먼저 웃다

발로렐리 결승 헤딩골 영국 2대 1 제압...코스타리카도 우루과이 3대 1로 이겨

'드록신'의 코트디부아르

일본에 2대 1 역전승

2014 브라질 월드컵 '죽음의 조'인 D조에서 먼저 웃은 것은 이탈리아와 코스타리카였다.

'아주리군단' 이탈리아는 '종가' 잉글랜드를 제압하고 8년 만의 정상 탈환을 향해 산뜻하게 첫 걸음을 뒀다. 반면 남미 강호 우루과이는 그나마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코스타리카에 완패를 당하며 이번의 제물이 됐다. 앞으로 16강 진출을 위한 D조의 총성없는 전쟁은 더욱 불을 뿜게 됐다.

이탈리아는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마나우스의 아마조니아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마리오 발로렐리(AC밀란)의 결승골로 잉글랜드를 2-1로 꺾었다. 이로써 월드컵 무대에서 명예회복을 베푸는 이탈리아는 첫 걸음을 제대로 뒀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챔피언 이탈리아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는 2무 1패를 거두고 조별리그 통과조차 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북중미 북병 코스타리카가 우루과이를 3-1로 제압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우루과이로서는 무릎을

월드컵 스코어 보드

	브라질	3:1		크로아티아
	멕시코	1:0		카메룬
	스페인	1:5		네덜란드
	칠레	3:1		호주
	콜롬비아	3:0		그리스
	우루과이	1:3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1:2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2:1		일본

다져 회복 중인 간판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를 벤치에 앉혔다고는 해도 예상 밖 패배였다.

우루과이는 전반 24분 에딘손 카바니(파리생제르맹)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가듯 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코스타리카의 파상공세를 견뎌내지 못했다. 코스타리카는 후반 9분 조엘 캄벨(올림피아코스)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이어 3분 만에 오스카르 두아르테(브뤼헤)가 절묘한 헤딩슛으로 역전 결승골을 뽑았다.

후반 39분에는 마르코스 우레나(쿠반 크라스노다르)가 췌기골을 터뜨렸다.

첫 경기에서 이탈리아와 나란히 승점 3을 챙긴 코스타리카는 골 득실차에서 뒤져 D조 2위에 올랐다. C조에서는 남미 대륙 예선 2위로 본선에 진출한 콜롬비아가 그리스를 3-0으로 완파했다. 전반 6분 파블로 아르메로(웨스트햄)의 선제골을 신희찬으로 후반 13분 테오필로 구티에레스(리베르 풀라데), 경기 종료 직전 제임스 로드리게스(모나코)가 골 잔치에 가세해 무난히 승점 3을 수확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가 아시아 챔피언 일본에 2-1로 역전승을 거두고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통과와 희망을 부풀렸다. 코트디부아르는 전반 16분 혼다 게이스케(AC밀란)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았지만 후반 19분 윌프리드 보니(스완지시티), 21분 제르비뉴(AS로마)의 연속골로 일본에 2-1로 역전승했다. 사타구니 부상 여파로 선발 출전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간판 골잡이 디디에 드로그바(갈라타사라이)가 후반 17분 교체 투입되고 나서 4분 만에 두 골이 터졌다. 코트디부아르는 콜롬비아와 승점은 같고 골 득실차에서 뒤진 조 2위에 자리했다.

초반부터 '골풍년'...화끈한 월드컵

7경기 평균 3.57골...네이마르·판 페르시·로번 2골 득점 공동 선두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초반 풍족한 골 잔치가 펼쳐지고 있다.

15일(이하 한국시간) D조 조별리그 1차전 이탈리아-잉글랜드전까지 조별리그 7경기가 끝난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는 한 경기 평균 3.57골이 터졌다.

최근 월드컵에서 갈수록 골이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대회 평균 2.71골이 나온 이후 월드컵 대회당 득점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1998년 프랑스대회에서는 2.67골, 2002년 한일 대회에서 2.52골, 2006년 독일 대회에서 2.3골이 나왔고 직전 대회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선 2.27골로 더욱 줄었다. 이 흐름은 최근 수비 축구가 득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은 초반이긴 해도 화끈한 골 잔치가 이곳저곳 펼쳐지면서 그들

안 골에 목 마른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다. 14일 멕시코와 카메룬(멕시코 1-0 승리) 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3골 이상 터졌다. 특히 조별리그 백매치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14일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B조 1차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스페인이 네덜란드에 5골이나 내주는 허술함을 선보인 덕에 6골이나 나왔다.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는 크로아티아, 호주, 우루과이를 3-1로 화끈하게 제압했다.

대회 초반 화끈한 골 퍼레이드는 골잡이들의 활약과 브라주카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득점왕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브라질의 네이마르(바르셀로나)는 크로아티아전부터 페널티킥을 포함해 2골을 올려 득점왕 경쟁에 먼저 뛰어 들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리언 로번(바이

에른 민헨)이 나란히 2골씩 넣어 이름값을 토포했다. 칠레의 알렉시스 산체스(바르셀로나), 우루과이의 에딘손 카바니(파리생제르맹), 이탈리아 마리오 발로렐리(AC밀란), 잉글랜드 대니얼 스테리지(리버풀) 등 골잡이도 한 골씩 넣어 자국 팬을 흥분시켰다.

이번 대회 공인구인 브라주카가 불규칙성이 높다는 점도 골 폭죽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일단 선수의 발에 맞으면 회전수나 공기와의 마찰 정도에 따라 궤적이 생긴다. 이 궤적이 불규칙적일수록 골키퍼가 예측하기 어렵다. 브라주카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용던 자블라니보다는 불규칙성이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골키퍼들 사이에서는 막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월드컵 이모저모

○~2014 브라질 월드컵의 흥분 속에서 '보안'이 생명인 게릴라 두목이 여유를 즐기려다가 달미를 잡았다. 15일 '엘 티엔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반군인 민족해방군(ELN)의 게릴라 두목 중 한 명인 알프레도 곤살레스가 볼리비아의 은신처에서 월드컵을 보러다가 붙잡혔다. 한 장소에서 1~2일 넘게 머물지 않는 곤살레스는 이번 은신처에서는 여러 날을 머무르며 위성 방송 수신기

네덜란드, 스페인 대파는 '가족의 힘'...브라질 '매춘클럽' 즉흥경기 열어

를 설치했고, 술과 음식 등을 구해 월드컵 시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런 '사치스러운' 행동에 불만을 품은 경호원 한명이 콜롬비아와 그리스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기 전에 당국에 비밀을 누설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그리스와 콜롬비아의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 경기가 열린 브라질 동남부 미나스제라이스주(수)

벨루오리존치. 15일 경기가 끝난 직후 이 도시의 도로에서는 또 다른 축구 경기가 펼쳐졌다. 주황색 원뿔형 교통표지로 골대를 표시한 이 즉흥 경기의 선수들은 브라질 매춘부들. 이 경기는 미나스제라이스 매춘부 협회가 성 노동자의 인권을 일깨우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마련한 행사였다. '별거벗은 축구 클럽' 일원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브라



'드록신'의 호령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의 드록바가 14일(현지시간) 2014 브라질월드컵 C조 일본과의 경기에서 프리킥을 차기에 앞서 동료들에게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신 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 1899-0240